

월요논단



정 구 철
제주국제대학교 명예교수

올여름 제주는 큰비가 내리던 장마와 달리 비가 내리지 않는 마른장마를 지나며 무더위 기간이 길어졌다.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와 휴가철이 시작되며 사람들은 휴가 기간에 해외로 떠나거나 호텔이나 리조트에 묵으며 소위 ‘호캉스’를 보내고, 자동차로 명승지를 찾아 캠핑을 즐기며, 떠날 입장이 되지 못한 이들은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홈캉스를 하며 더위를 피한다. 시대는 달라졌지만 더위를 대처하는 방법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우리 선조들은 여름을 단순히 무

선조들의 피서 문화에서 배우는 지혜

더위를 견디는 계절이 아니라 자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말이 바로 ‘피서(避暑)’다. 이는 더위를 피한다는 뜻을 넘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담겨 있는 표현이다. 조선시대에는 유람, 청유, 납량, 탁족, 천렵 같은 표현도 사용했다. 특히 납량(納凉)은 서늘한 기운을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자연의 시원함을 몸과 마음에 채우는 지혜로운 여름 문화를 의미한다. 지역마다 피서 풍속도 다양했다. 산이 많은 강원과 영남에서는 계곡과 폭포를 찾아 발을 담그고 정자에서 시를 읊으며 풍류를 즐겼고, 충청과 호남에서는 강가의 버드나무 그늘이나 모래톱에서 그물 던져 고기를 잡고 이웃과 음식을 나누며 더위를 식혔으며, 해안 지역 사람들은 시원한 해풍을 벗 삼아 하루

의 피로를 풀었다. 제주의 피서 문화는 더욱 독특했다. 무더위가 시작되면 물이 솟는 계곡이나 웅천수를 찾았는데 서귀포 지역은 돈내코와 소정방 폭포에서 물놀이와 보양식을 나누며 기력을 회복했고, 제주시의 방선문과 웅연에서는 선비들이 배를 띄워 시를 읊었다. 산지전은 아이들과 여인들의 물놀이와 맥감는 장소였고, 삼양바닷가의 검은 모래찜질은 신경통에 효험이 있다는 믿음으로 많은 이들이 찾았다. 그 외에도 제주 전역에 산재된 웅천수가 솟는 곳에서 흐르는 맑을 찾아 내고 체열을 식히기도 했다. 해녀들은 바다에서 물질을 하며 무더위를 이겨냈다. 제주의 주거지 또한 초가집과 현무암 돌담은 자연 바람을 활용한 훌륭한 냉방 장치였다. 어른들과 아이들이 모여있던 마을 뽕나무 그늘은 여름

사랑방이고 마을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던 교육장이기도 했다. 주민들 간에는 “검불령 힘써”(땀 식히고 하세요)라고 인사하기도 했다. 삼복에는 보양식으로 기력을 보충하여, 다가올 농번기를 준비하는 재충전 시간으로 삼았다. 이렇듯 선조들의 피서는 자연을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어우러지며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지혜가 담겨있는 것이다. 어느 때보다 무더움이 예상되는 올여름이다.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계곡을 찾아 발을 담그고 숲길이나 바닷가를 거닐며 자연이 주는 바람과 물소리, 파도가 만들어 내는 신선한 산소를 들이키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이 땅을 살았던 선조들이 남긴 피서의 지혜도 익히고 건강도 증진시키면 좋겠다.

사설

위 지사, ‘제왕적 도지사’ 꿈꾸나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행정시장 공모제를 사실상 폐지하고 도지사가 직접 지명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행정시장의 인사권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위 지사는 최근 신문·방송사 출입기자단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현행 행정시장 임명 방식을 비판하며 공모 없이 지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4급 이하 공무원의 인사권이 시장에게 있어 공무원들이 도지사가 아닌 시장만 바라보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인식이 과연 타당한지 의문이다. 행정시 공무원들이 행정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과연 잘못된 것인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행정을 책임지는 시장이 일정한 인사권을 갖고 조직을 지휘하는 것은 책임행정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

더욱이 위 지사는 제주도의원 시절 ‘행정시 권한 강화’에 앞장섰다. 도지사에게 집중된 권한을 행정시에 이양하고 예산·인사·지역 현안 처리 권한을 확대해야 주민 밀착 행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랬던 위 지사가 도지사가 된 뒤 행정시장의 인사권을 문제 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줄곧 제기돼 온 문제 중 하나가 도지사에게 지나치게 집중된 권한이다. 행정시 권한 강화도 이를 개선하고 행정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돼 왔다. 행정시장 임명 방식과 권한 조정은 도지사의 조직 장악력이 아니라 도민 편익과 행정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위 지사에게 묻고 싶다. 행정시의 권한과 자율성을 줄여 공무원들이 다시 도지사만 바라보는 행정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폭염으로 수난사고 증가, 안전수칙 철저히

폭염이 연일 기승을 부리면서 무더위를 식히려고 물놀이나 수중레저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 앞으로도 폭염이 이어질 전망이어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7월 한 달간 수난사고 관련 구·군급 출동건수는 126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05건보다 20% 증가했다. 올해 제주에서는 수난사고로 8명이 숨졌다. 물놀이 인명사고 2명과 낚시와 수중레저 사고 6명이다. 수난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는 재발방지를 위해 수산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한다. 우선 물놀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인과가 불리는 지역과 사고 다발 지역에 안전요원을 추가 배치하고 소방, 자치경찰, 해경 등 유관기관 협업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사고 다발지역 등에 근무 중인 안전요원의 근무시간을 전·후 1시간씩 추가배치하거나

탄력 운영한다. 또 지역주민 참여 자체 감시단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치경찰이 운영 중인 주민자치경찰과 의용소방대와의 협업에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이 운영하는 수영장, 워터파크시설, 수중레저업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하고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홍보도 확대한다. 가을 문턱에 들어선다는 입추가 지났지만 당분간 제주 전역에 폭염이 예상되고 있어 수난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안전 안타까운 사고가 반복되는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 수난사고 대부분은 사소한 안전수칙을 간과하거나 방심하는 순간 발생한다.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열린마당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3500명 함께 뒀다

정 가 현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자들은 자원봉사자 기본 및 친절 교육과 안전교육, 성평등 교육은 물론, 장애 유형별 특성과 눈높이에 맞춘 응대법까지 별도로 익히며 준비하고 있다.

누군가는 이른 아침 경기장 입구에서 선수단을 맞이하고, 누군가는 피약별 아래서 경기장 입장 안내를 하며 구슬땀을 흘릴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이 모습들이야말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진짜 얼굴이라고 생각한다. 트랙 위 선수들에게 스포트라이트 향할 수 있는 것은 대회 이면에서 자신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올해 체육대회가 끝난 뒤 사람들의 기억에 ‘제주 사람들이 참 따뜻하게 맞아주었다’는 인상이 남길 바란다. 그리고 그 인상을 만드는 주인공은 다름 아닌 3500명의 자원봉사자일 것이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뉴스-in

“갑질 안돼”… 릴레이 전시 눈길

도교육청, 직장 규범 홍보

“현장 중심 환경정비 최선”

○…제주도교육청이 직장 내 갑질을 예방하기 위해 릴레이 포스터 전시회를 전개.

전시회는 탐라교육원과 제주국제교육원을 시작으로 오는 10월 9일까지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 등 도내 교육기관을 순회하며 ‘갑질 근절 행동 규범’을 알리는 방식으로 진행.

제주교육 청렴 캐릭터 ‘동백이’가 등장하는 포스터 10종 속 행동 규범은 ▷공정한 업무 처리 ▷부당한 업무지시 금지 ▷직원 간 상호 존댓말 사용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지시 금지 등으로, 상호 존중과 배려가 건강한 조직문화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강조.

김지은기자

○…서귀포시가 지난 7일 김원철 서귀포시 부시장 주재로 읍면동장과 관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배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읍면동 환경정비 대책회의’를 갖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도시환경 정비 강화 방안을 논의.

급격한 아열대화와 고온다습한 기후의 지속으로 수목과 잡초의 생육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풀베기 횟수를 연 5~6회로 확대하고 덩굴식물과 잡초 제거도 집중 추진해 정비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

시 관계자는 “앞으로 다가올 전국·장애인체전과 추석을 맞아 서귀포시를 찾는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환경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

백규탁기자

칼라강판
조립식 건물
녹슬고
비새는 곳에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82-3644
010-4690-3636

제주백도라지 분말

관심과 사랑 주심에 이룬 성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약백도라지 분말 100% 목성콜

현대백화점, 농협 하나로마트,
경제통상진흥원판매장 판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 영인
2009 백도라지 영인

전화 064-783-8987, 010-5755-8987, 상담 010-2691-9316
홈페이지 : http://www.baekdoraji.com

주산지
선홍2리 용암동굴계 거문오름 일대지역

한기림JK약백도라지연구소

토지 후손 찾기

토지 대장에서 주소 없이 이름만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상속자(주인)을 찾아드립니다.

후손 찾기 한달 이내 가능합니다.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 후손 찾아드립니다.
- 등기는 되어 있으나 주소가 바뀌어 소유자를 못찾는 경우
- 소유권 이전 분쟁시 승소 가능 자료를 찾아드립니다.

묘지전문 제 주 토 박 이

제주누리 미등기 토지 연구소
신소장 ☎ 010-7305-7819

탁월한
선택!
확실한
광고 효과

한라일보 광고문의
750-2828
서귀포지사
732-5552

가족묘지·문중묘지
허가 대행

별초대행·각종제초작업

묘지관리·묘지보수

방묘·산담·잔디작업

평장·이장·화장·무연고 전문

가족묘지 & 산소에 새, 석새, 잡풀 죽는 약 보유중

장례지도사 강 봉 호
010-5254-6661
「진주강씨 제주도종회 이사
사)한국역술인협회 제주지부 이사
관음사 영락원 관리이사」

하나 장 의 사
616-08-85402